



## 1 노 대통령 방미수행

참여정부 출범으로 벤처에 대한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대표 벤처기업 인이 동행함에 따라 참여정부에 벤처의 위상을 바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.



## 3 벤처CEO포럼 출범

벤처CEO간 정보공유, 벤처관련 주요현안과 이슈 등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위해 마련된 벤처CEO포럼은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,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참석하는 등 주요 정책 수장이 함께 함으로써 벤처CEO와 정책책임자간에 '코드'를 맞추는 장이 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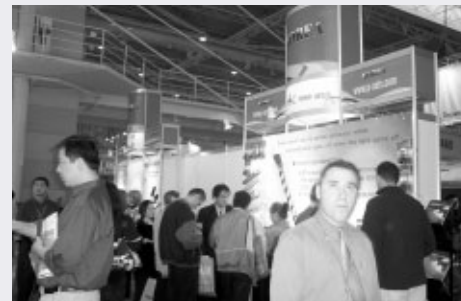
## 6 글로벌지원센터 및 경영지원센터 개소

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지원센터와 대외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센터가 공식 개소했다. 두 지원센터는 전문적인 파트너사와 업무제휴 및 협력을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있다.



## 8 맞춤형교육 실시

벤처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취약한 재교육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맞춤형교육은 5월과 6월에 직급별 집체교육과 4, 6, 9, 12월 경영전략기획능력향상 과정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며,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.



## 2 벤처코리아2003 개최

'벽을 넘어 세계로(Beyond the Global Chasm)' 라는 가치를 내걸고 열린 '벤처코리아2003'은 명실상부한 벤처산업 최대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. 2003년도 영예의 벤처대상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돌아갔다.



## 4 인케 총회 및 인케스프링 개최

인케(INKE :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)는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인케스프링을 개최한 데 이어 10월 국내외 간판급 벤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인케총회를 열고 인케가 벤처기업의 네트워킹을 돕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.



## 5 국내 및 해외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

협회는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EMS산업 협의회, 한성대, 웅진코웨이개발, 다음취업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또한 중국 상해시 유관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,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.



## 7 네트워크 : 홍보네트워크, CFO네트워크 각종 포럼 운영

벤처기업 재무담당자들의 모임인 'CFO네트워크', 홍보담당자들의 모임인 '벤처홍보네트워크', 분야별 포럼 등을 운영하여 벤처기업기업인들간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. 특히, 벤처홍보네트워크는 7월 창립, 대내외에 벤처산업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

## 9 해외 전시회 참가 : 호주세빗, 상해

벤처기업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호주 'Cebit전시회'와 중국 '상해국제산업박람회'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. 한국관은 현지 관람객과 바이어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, 높은 구매계약성적을 얻었다.



## 10 윤리위원회 운영 및 한사랑벤처릴레이 운동 등 이미지 제고사업 추진

벤처기업의 윤리경영 확산과 벤처 건전화화를 위해 윤리위원회 운영하고, 나눔의 실천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. 지난 10월에는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으로 모은 기금 5000만원을 비영리단체 2곳에 기증했다.